



두릅나무 선별개체의 특성

■ 가시의 유무 및 생장

- 두릅나무는 일반적으로 줄기에 많은 가시를 지니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가시는 두릅순이나 줄기를 가해하는 서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기능으로 생각되고 있다.
- 국내에 재배하고 있는 두릅나무 가운데 대표적인 민두릅은 일본에서 도입한 '청강'과 국내에서 선발육성한 '충북1호'가 있다. 이 두 품종은 줄기에 가시가 전혀 없어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재배자가 선호하고 있는 품종이다.
- 두릅나무의 가시는 나무의 나이가 들면서 점차 없어진다. 가시가 적은 개체로는 횡성(서성구), 진천 백곡, 경기 가평, 논산 벌곡 등의 개체로 나타났고, 가시가 보통 있는 개체로는 논산1호, 건국1호, 자오 등으로 나타났다. 가시가 보통으로 나타났던 개체는 1년생에서는 가시가 많지만 2년생부터는 가시가 점차 줄어들어 다루기에 크게 어렵지 않다.

■ 새순의 출아시기 및 색깔

- 새순의 출아가 빠른 개체로는 청강, 신구, 강릉 연곡 등 9개체, 보통인 개체는 울릉도, 진천 백곡, 건국 1호 등 6개체, 출아가 늦은 만생종은 강원 양구, 경기 가평, 용문산, 제주도 등 6개의 선발 개체로 나타났다.
- 새순의 색깔은 대부분 연한 녹색을 띠었으나, 녹색 혹은 적색을 띠는 품종도 있다. 민두릅나무인 '청강'과 '충북 1호', 기타 '논산 1호', '경기 양평', '전남 보성'의 선발개체는 적색(붉은 색) 계통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개체는 모두 연녹색을 띠었으나 '충북 보은'의 개체가 특이하게 녹색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성재배 및 노지재배

- 축성재배를 위해서는 축아가 키워야하며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일본에서 선발 육성된 '신구'를 들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 품종에 필적할 만한 두릅나무는 육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논산 1호, 자오, 강릉 연곡, 경기 여주 등 9 개체는 축아가 비교적 커서 축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단마디 축성재배는 '신구'를 추천할 수 있고, 국내에서 선발한 '논산 1호', '제주도', '건국 1호'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포기나 산지에서서의 재배를 통해 자연산 두릅순을 생산하려면 우선 생장이 좋아야 하며, 제주도 및 남부 도서지역에서는 '청강'을 추천할 수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논산1호, 자오, 용문산, 강릉연곡에서 선발한 개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천군에서 자체 선발하여 보급중인 '연천 산두릅'도 가능한 품종으로 나타났다.



■ 두릅나무 선별개체의 특성

선별개체	가시유무	생장	새순의 색깔	출아시기	축아발달	기타
울릉도	많음	보통	연녹	보통	미약	새순이 퍼지지 않음
횡성(사성구)	매우 적음	"	연녹	조생	미약	
진천, 백곡	많음	"	연적	보통	보통	
경기 양평	많음	저조	적색	조생	보통	새순이 퍼짐
강원 양구	많음	저조	연녹	만생	미약	
건국1호	보통	보통	녹색	보통	보통	
경기 기평	보통	"	연녹	만생	미약	
전남 보성	많음	저조	적색	조생	"	
용문산	많음	양호	연녹	만생	"	새순의 것이 길고 적색을 띠
강릉 연곡	"	"	"	조생	미약	새순이 퍼지지 않음
경기 여주	"	"	"	"	보통	
경북 봉화	"	보통	"	"	보통	
오대산	"	저조	"	"	미약	
충북 보은	"	보통	녹색	만생	보통	
일본 정간	없음	매우 양호	적색	조생	미약	여름순 이용가능
제주도	없음	양호	연녹	만생	보통	
일본 지오	보통	매우 양호	"	보통	보통	새순이 퍼짐
일본 신구	보통	저조	"	조생	미약	
노산 벌곡	적음	보통	"	만생	미약	새순이 퍼지지 않음
노산 1호(고종범)	보통	양호	적색	보통	보통	
민두름(충북1호)	없음	보통	적색	보통	미약	



건국1호



충북1호



노산1호



강릉 연곡



용문산



'신구'의 축아생장

근삼수 굴취, 조제 및 양묘 기술

■ 뿌리 굴취

굴삭기를 이용하여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케내야 한다. 케낸 모목은 뽕죽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뿌리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길게 잘라서 마대자루에 넣어 운반한다. 뿌리는 냉장이 가능한 저온저장고(약 5℃ 내외)에서 2주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예리한 전정기위로 조제하여 삼목을 실시한다.

■ 삼수 조제

길이는 10cm 이상, 굵기는 1cm 정도가 되어야 건전한 모목으로 육성할 수 있다. 보다 작은 뿌리도 삼목이 가능하지만 생장이 느려서 이듬해에 분포에 정착하기가 어렵다. 근삼수는 일반적으로 소독이 필요치 않으나 토양세균에 의한 감염이 우려된다면 페테이트 T 수화제에 3시간 정도 담구어 살균한 다음 삼목한다.

■ 상준비

마사토나 자갈이 섞인 전석지가 좋으며 이른 봄에 온실에서 근삼을 실시하면 양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실에서의 근삼은 노지보다 보다 큰 모목으로의 육성이 가능하고 집약적인 관리, 특히 재초에 유리한 점이 있다. 한편 온실에서 근삼에 있어서도 삼목상은 배수가 좋도록 20cm 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 토양 살균

포지는 반드시 토양살균제 처리 후에 상을 만들어야 한다. 두릅나무의 가장 치명적인 병은 뿌리를 통해 감염되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역병균이다. 병원균은 조균류에 속하는 물곰팡이 종류로서 여름철 호우시에 배수가 잘 되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 기타

근삼수를 채취하는 모수는 1~2년생의 건전한 모목의 뿌리를 채취하고, 3년 이상 된 모수에서는 뿌리를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릅나무는 생장이 빠른 다비성 수종이므로 상을 만들 때 기비와 퇴비를 충분히 한다.



굴삭기를 이용한 모목 굴취 및 선모

온실의 근삼실시(3월초)



흙 털기, 뿌리수질 및 모목의 가식

6월 중순의 생장 상태